

스페인 15세기 알레고리의 사실주의 경향

백 승 욱
고려대학교

백승욱(2013), 스페인 15세기 알레고리의 사실주의 경향.

초 록 15세기를 중심으로 중세스페인어로 기록된 알레고리 서사문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적인 흐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의인화된 철학적·종교적 개념들 간의 다양한 관계 설정과 대화를 토대로 이미 비시고도시대 이전부터 전승되던 전통적인 이베리아반도의 서사문체가 지속적으로 전승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스페인 15세기 알레고리는 비현실적인 비유 체계로 짜인 배경 묘사 속에 동시대 인물이나 사건을 자주 언급하며 서사작품의 사실성을 부각시키는 독특한 문체를 실험한다. 예를 들어, 미셀 프란시스코 임베리알의 「후안 2세에게 바치는 글(1405), 산띠야나후작의 『뽀사의 희극』(1435), 후안 데 메나의 『운명의 미로』(1444), 후안 델 엔시나의 「명성의 승리」(1492) 등과 같은 일부 작품만 보아도 그 이전의 알레고리 픽션과는 달리 현실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묘사·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15세기 알레고리 작품은 스페인 중세문학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된 전통적인 알레고리 서사작품(예컨대 「사랑의 논증」이나 「영혼과 육체의 논쟁」 등)에 비해 역사적 현실을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작품에 투영하고 있는가? 또한, 이 15세기 새로운 알레고리 문체가 스페인 문학사에서 보여주는 의의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본고의 논지 전개에 있어 기본적인 초점이 된다.

핵심어 중세 알레고리, 알레고리 논쟁, 데시르 나라띠보

I. 시작하는 말

알레고리(allegoría)는 오늘날 ‘상징’이나 ‘비유’와 유사한 광의의 개념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한편 서구 중세문학의 한 구체적인 분파로서 협의의 개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이 협의의 알레고리는 본연의 중세적 개념으로 어떤 중요한 관념이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정형화된 서사문학의 한 조류를 의미한다.¹⁾ 의인화된 개념이나 상징체가 등장하여 각자의 생각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상반되는 성향의 상대자와 논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이 스페인 중세 알레고리의 일반적 패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작품마다 다소 규모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일련의 에피소드들을 조합하여 시공간적 연결성을 토대로 한 어떤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형식상의 공통점이 있다. 중세 알레고리는 르네상스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한 소설과 같은 서사장르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실반영성이 많이 떨어지고 난해한 상징체계의 사용이 극대화된 점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출판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된 르네상스 이후와는 달리 문학을 접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극히 일부 지식계층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세 알레고리가 보여주는 문체적 현학성은 그다지 특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중세 알레고리의 난해성이 일상생활에서 소통할 때 사용하는 보편적 언어가 아닌 특정 문어체 즉 문학을 위한 일종의 협약된 문체를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알레고리 작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형이상학적 개념, 상징체계, 형식구조, 서사기법 등이 정형화된 어떤 공식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다는 사실로도 이해할 수 있다.

스페인 중세 알레고리는 내용과 형식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인물 유형, 어

1) 라파엘 라빠사(Lapesa 1957, 95-177)는 산띠야나 후작의 알레고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스페인 작가의 서사문학을 “데시르 나라띠보(decir narrativo)”라는 용어를 통하여 최초로 분류한 적 있다. 그 이후 백승욱(cfr. Baik 2003, 17-23)은 데시르 나라띠보를 스페인 15세기를 중심으로 발전한 알레고리 서사문학의 조류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시켜 연구한 바 있다.

휘 선택, 정형률 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15세기에 이르면 예술 분야에 속하기보다 논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과학적 학문으로 인식될 만큼 체계적인 수준을 보여준다(cfr. Steunou y Knapp 1975, 13). 또한 알레고리를 창조하는 ‘시인’(poeta)이라는 용어도 단순한 기능인으로서의 관념을 넘어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중요한 역사적 현상을 성찰하고 탐구하는 신학자와도 같은 높은 위치에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²⁾ 예를 들어, 미셀 프란시스코 임페리알(Micer Francisco Imperial)의 「후안 2세의 탄생에 바치는 글 Decir al nacimiento de Juan II」(1405), 산띠야나 후작(Marqués de Santillana)의 『뽀사의 희극 Comedieta de Ponza』(1435), 후안 데 메나(Juan de Mena)의 『운명의 미로 *Laberinto de Fortuna*』(1444), 후안 델 엔시나(Juan del Encina)의 「명성의 승리 Triunfo de Fama」(1492) 등과 같은 서사작품들이 바로 15세기 스페인 알레고리의 발전 양상을 구체적으로 대변해준다. 본 연구는 스페인 중세 알레고리의 문체적 조류를 대표하는 주요 작품들을 선별·분석하고 특히 15세기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주의 경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며 역사적 현실과의 연관성이 어떠한지 구명하는데 그 초점을 둔다.

II. 스페인 중세 알레고리의 개념

현존하는 스페인 중세 알레고리 작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은 4세기에 기록된 「영혼의 전쟁 *Psychomachia*」이다. 「영혼의 전쟁」은 스페인 북부도시인 깔라오라 출신의 아우렐리오 뿌루덴시오 끌레멘테(Aurelio Prudencio Clemente, 348-410)에 의하여 라틴어로 기록된 시작품으로서 선악과 관련된 다양한 의인화된 개념들이 기독교적 당위성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방식의 알

2) 산띠야나 후작은 프란시스코 임페리알과 같은 우수한 알레고리 작가들을 단순한 소리꾼(dezidor)이나 음유시인(trobador)의 위치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시인(poeta)으로 분류한다(cfr. Gómez Moreno y Kerkhof 1988, 452).

레고리 서사체로 구성된다. 리베로 가르시아(Rivero García(ed.) 1997, 15-16)는, 뿌루텐시오의 이 알레고리 작품이 이전 서유럽의 문헌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매우 독창적인 문체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문헌은 문학적 의의뿐만 아니라 스페인 중세 초기의 기독교 관념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교육서로서도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가톨릭에 대한 옹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내세우는 이 알레고리 텍스트의 대부분은 선과 악을 대표하는 다양한 의인화된 개념들이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작품의 일인칭 서술자는 정결(Pudicitia)과 감정(Libido) 사이에서 일어난 결투를 아래 예문과 같이 묘사한다.

Al punto, pronta a trabar lid en el campo herboso, avanza la doncella Castidad resplandeciente en sus hermosas armas. Sobre ella se abalanza, ceñida con las teas de su patria, Pasión la de Sodoma, lanza contra su cara un venablo de pino resinoso con azufre ardiendo, busca con las llamas sus castos ojos y trata de inundarlos de asqueroso humo. Pero la doncella, impasible, golpea con una piedra la diestra de la ardiente Furia y el dardo en llamas de esa zorra perversa y sacude y repele la antorcha lejos de su sagrado rostro. Una vez desarmada la ramera, hiende entonces con un golpe de espada su cuello. Ésta vomita calientes vajaradas cuajadas de espesa sangre y, al punto, la exhalación de su sórdido aliento ensucia el aire en torno suyo.(Rivero García(ed.) 1997, 370-371)

이어서 들판에서 전투가 잠잠해지자 찬란한 빛을 발산하는 여인인 ‘정결’이 그녀의 휘황찬란한 칼을 차고 나선다. 그녀 위로 소돔의 횃불을 든 ‘감정’이 날아와 얼굴을 향해 유향불에 타오르는 송진이 발린 창을 던지고 불을 그녀의 정결한 눈에 대어 혐오스러운 연기로 눈물을 쏟아내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흔들림 없는 여인(정결)은 돌을 던져 타오르는 ‘화염’의 오른팔을 맞히고 그녀의 얼굴에서 횃불이 멀어지도록 물리친다. 매음굴의 창녀(감정)가 무기를 잃자 그 순간 여인(정결)은 칼을 휘두르며 감정의 목을 향해 날아든다. 그녀(감정)의 목은 김을 내며 굳어가는 질은 피를 뿜어냄과 동시에 그 추한 심호흡은 주변의 공기를 더럽힌다.(논자 번역)

작품의 대부분에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관된 믿음(Fides), 소망(Spes), 자비(Operatio), 정결(Pudicitia), 겸손(Mens Humilis), 인내(Patientia), 겸

소(Sobrietas), 일치(Concordia) 등과 같은 개념들이 그와 상반되는 부정적 개념들 즉, 미신숭배(ueterum Cultura deorum), 탐욕(Auaritia), 감정(Libido), 분노(Ira), 오만(Superbia), 애욕(Luxuria), 불일치(Discordia) 등과 장황하고도 격렬한 사투를 벌이게 되며, 그 결말부는 선 개념들이 악 개념들을 이겨내고 ‘믿음’과 ‘일치’가 ‘지혜의 사원’을 건립하게 된다는 내용과 아울러 이 작품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선사한 그리스도에게 일인칭 화자가 감사를 올리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린다. 본 작품은 의인화된 개념들 사이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들을 엮어 한 편의 긴 알레고리 픽션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스페인 중세 알레고리의 원형적 가치를 지닌다. 동시에 믿음, 소망, 사랑에서 비롯하여 수많은 주요 기독교 관념들이 서로 다른 층위에 배치되어 거대한 지적 체계를 구성하며 당시 중세사회에서 묵시적으로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층위의 관념들을 관찰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계기를 마련한다.

중세 알레고리에 대한 정의는 기원후 7세기에 스페인 세비야 출신의 성자 이시도로 주교(San Isidoro de Sevilla)가 기록한 『어원론 *Etimologías*』에서 발견된다. 『어원론』은 당시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서구 기독교사회에서 거론되었던 수많은 주요 개념들의 의미를 풀이한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이 문헌의 1권인 「문법 *De Grammatica*」편에서 알레고리의 뜻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Allegoria est alieniloquium. Aliud enim sonat, et aliud intellegitur, ut Tres litore cervos conspicit errantes. Vbi tres duces belli Punici, vel tria bella punica significantur.(Oroz Reta y Marcos Casquero(ed.) 1982, I: 346)

알레고리는 표층적 의미와는 다른 어떤 중요한 내적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 방법이다. 즉, 뭔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와 다른 실제 의미가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해변에 있는 세 마리의 수사슴을 목격한다.”라는 표현은 포에니전쟁과 관련된 세 명의 군인이나 세 번에 걸쳐 일어난 포에니전쟁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뜻한다.(논자 번역)³⁾

이 예문을 통하여 이시도로 주교가 정의한 알레고리는 일종의 광의적 관점

3) Cfr.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스』, 1권, 183행(Bejarano(ed.) 1996, 13).

에서 ‘비유’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스페인 중세문학 전체에 접목시켜 생각해 볼 때, 알레고리는 단순한 어휘의 수준에 넘어서 픽션 전체를 지지하는 일종의 구조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레고리 작품 내부에서 의인화된 개념들은 일련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작가가 작품 전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관념이나 사상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알레고리는 주요 개념들에 대한 어휘에서 출발하여 작품의 형식 전체를 아우르며 작품 내용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구조 그 자체를 의미한다. 비록 스페인어 작품은 아니지만 산티아나 후작의 도서관에서 이미 15세기 초에 소장되어 있었던 단테의 『신곡 *Commedia*』이나 페트라르카의 『승리 *I trionfi*』를 비롯하여 당시 프로방스 혹은 이탈리아 문인들이 기록한 알레고리 작품들은 스페인 작가들에게 직접적인 모방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III. 중세 알레고리 논쟁

상반된 두 개념 혹은 그 이상의 의인화들 사이에 일어난 대화를 기반으로 구성된 알레고리 문체는 중세스페인어로 기록된 논쟁(debate) 장르의 범주에서 주로 발견된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논쟁’ 작품들은 12세기 이후 기록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예로서 「영혼과 육체의 논쟁 *Disputa del alma y el cuerpo*」(12-13세기), 「기독교인과 유태인의 논쟁 *Disputa entre el cristiano y el judío*」(13세기), 「사랑의 논증, 그리고 물과 술의 논쟁 *Razón de amor, con los denuestos del agua y el vino*」(13세기), 「엘레나와 마리아 *Elena y María*」(13세기), 「육체와 영혼의 대결 *Disputa del cuerpo e del ánima*」(14세기), 「사랑과 노인의 대화 *Diálogo entre el Amor y un viejo*」(15세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알레고리 픽션들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인화된 주요 개념들이 변증법적 대치 구도 속에서 논쟁을 벌이며 중국에 가서 어떤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형식상의 공통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13세기 중세어로 기록된 「물과 술의 논쟁」에서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는 ‘물’과 감정을 상징하는 ‘술’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는 이 두 영역을 소유한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갈등을 전제로 구성된다.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의인화된 두 알레고리 인물인 물(이성)과 술(감정)은 서로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격렬한 논쟁을 벌인다.

Aqui comienza a denostar
 el uino, y el agua a maliuar.
 El uino faulo primero:
 “mucho m'es uenido mal conpanero!
 Agua, as mala mana,
 non quieria auer la tu compana;
 que quando te legás a buen bino,
 fazes lo feble e mesquino”.
 “Don uino, fe que deuedes,
 ¿por quales bondades que uos auedes
 a uos quales bondades que uos auedes
 a uos queredes alabar,
 e a mí queredes aontar?
 Calat': yo e uos no nos de nostemos,
 que uuestra mannas bien las sabemos:
 bien sabemos que recabdo dades
 en la cabeca do entrades;
 los buenos uos precian poco,
 que del sabio facedes loco;
 no es homne tan senado,
 que de ti ssea fartado,
 que no aya perdío el sseso y el recabdo”.
 (Manuel Alvar(ed.) 1991, 154-155, vv. 163-182)

여기, 술이 모욕을 주기 시작하고
 물 또한 술을 공박한다.
 먼저 술이 말한다.
 “물아, 넌 고약한 버릇을 가졌구나,
 나와 같이 있으니 달갑지 않아,

네가 좋은 술에 다가가면
 그걸 연하고 저급하게 만들지.”
 “술아, 네가 갖지 못한 명예를 걸고 말하건대,
 너에게 어떤 착한 부분이 있기에
 칭찬을 받기를 바라고
 또 나를 능멸하기를 원하지?
 입 다물어. 우린 서로 공격할 필요가 없어.
 너의 못된 성격을 잘 알지.
 너는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쁜 생각을 심어주지.
 착한 사람들은 너를 좋게 평가하지 않아.
 넌 똑똑한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지.
 어떤 신중한 사람조차도
 너로 인해 지치게 되면
 판단력과 평정심을 잃게 되지.”(논자 번역)

14세기에 기록된 알레고리 작품인 「육체와 영혼의 대결」⁴⁾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인간의 죽음을 두고 그 직접적인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격한 공방전을 벌인다. 지옥과 같은 음침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에 피소드는 「술과 물의 논쟁」과는 달리 일인칭 자전적 화자의 어투로 서술되며 결론부에 가서는 악의 세력이 승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Replicato del cuerpo

Por justa razon te quiero provar
 Que fuste causa de todo pecado,
 Ca desde la muerte nos ovo apartado
 Fallé sin embargo mi propio lugar.
 Tu nunca podiste aver nin fallar
 Lugar nin manera para guarescer
 Nin te aprovecha ya rebollescer
 Por tanto tu mesma te debes juzgar.

4) 본 알레고리 작품의 일부분으로 확실시되는 훼손된 텍스트가 12-13세기에 이미 기록된 것으로 보아 현존 14세기 판본은 그 이전에 제작된 고본에 대한 전사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누엘 알바르가 제작한 알레고리 모음 시집(Alvar(ed.) 1984)에는 이 두 가지 판본이 모두 제시되고 있다.

Replicato del anima

Cuerpo maldicto, lixoso enconado,
 Por el gran fedor de tu fedentina
 Metieronte en foya, cobrieronte ayna,
 Dexaronte dentro a mal de tu grado.
 Tu piensas por tanto que as ya librado;
 Comigo has de ser aun a derecho;
 Avrás gualardon de todo tu fecho;
 Nel infierno por sienpre serás condenado.
 Estando mirando esta porfia,
 Salió un diablo negro de una espessura,
 Mortal espantoso de fuerte figura.
 Tenezas de fierro en la mano traya.
 E dixo contra el ave: Vos sodes mia,
 Conmigo yredes a ver my pasada
 Donde seredes por siempre heredada;
 Alla fallades assaz grand companya.

Fin

El ave essa hora dió grand apelido
 E dixo: Dios myo, tu que me crieste,
 Rey de piedat, librame deste,
 Senyor, pues tenés el poder complido!
 Tomala el dyablo, con ella ha fuydo.
 Con el grand pesar luego desparté:
 Del suenno que vi pasmado finqué,
 Ayna perdiera todo my sentido.
 (Manuel Alvar(ed.) 1991, 141-142, vv. 105-136)

육체의 항변

정당하게 말하건대, 나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은 이후에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고 악의 원인이
 너라는 사실을 밝혀내길 원하게 되었지.
 넌 자리를 결코 잡지 못했고
 숨는 방법조차 찾아내지 못했지.
 너는 이제 애를 쓸 필요도 없어,
 넌 네 스스로를 심판하게 될 거야.

영혼의 항변

저주받을 육체야, 추악하고 더럽구나.
 너의 찢은 고기에서 풍기는 악취로 인하여
 너를 무덤에 넣고 재빨리 묻어버리지.
 너로 인한 걱정이 많아 그곳에 두게 돼.
 너는 자유를 찾았다고 믿지만
 나와 함께 심판을 받으러 가야만해.
 네가 얼마나 잘했나에 따라 상벌을 받게 되지.
 지옥에서 영원히 감옥살이를 하게 될 거야.

[일인칭 서술자]

내가 이 결투를 지켜보고 있을 때
 머리숱에서, 무서워 기절초풍할
 검은색의 악마가 튀어 나왔다.
 그는 손에 삼지창을 들고 그 새에게
 말했다. “넌 내거야,
 나의 안식처로 함께 가야해,
 그곳에서 영원히 지내게 되며
 많은 동반자를 거기서 만나게 될 거야.”

결론

그러자 새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저를 기르신 하나님,
 자비로운 왕이시여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저를 악마로부터 구원하소서.”
 이에 악마는 그를 잡아채고서 도망쳐 버렸다.
 크게 놀란 나는 즉시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본 것에 충격을 받은 나는
 한순간, 모든 감각을 잃고 말았다.(논자 번역)

정형화된 개념들이 벌이는 논쟁 형식을 통하여 작가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스페인 알레고리 픽션은 15세기에 들어와 스페인 작가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더욱이 이 시기에 스페인 문인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된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와 정교한 시어(詩語)의 영향으로 작가 개인에 대한 표현이 훨씬 더 선명하게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알레고리 픽션이 추상적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 작가의 개별적인 주변 현실이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묘사를 조금씩 더해간다는 사실이 참신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러한 15세기 알레고리의 새로운 경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가로서 미셸 프란시스꼬 임빠리알, 알폰소 알바레스 데 비야산디노(Alfonso Álvarez de Villasandino), 루이 빠에스 데 리베라(Ruy Páez de Ribera), 산띠야나후작, 후안 데 메나, 고메스 만리께(Gómez Manrique), 후안 델 엔시나 등과 같은 당대 최고 수준의 시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테 알리제리와 같은 이탈리아의 초기 르네상스 시인들의 문체를 비교적 일찍 수용한 프란시스꼬 임빠리알은 자신의 알레고리 픽션 「후안 2세의 탄생에 바치는 글」을 통하여 까스티야의 왕자 후안(don Juan de Castilla)이 훗날 왕으로 등극하여 국토회복전쟁(la Reconquista)의 성취와 아울러 스페인(España)의 통일을 기원한다. 단테의 「천국」편의 알레고리 구조와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된 본 작품은 일곱 명의 여신(자비, 믿음, 소망, 정의, 강의, 충의, 절제)이 하늘에서 내려와 갓 태어난 왕자에게 각자가 준비한 선덕(Virtud)을 선물하면서 해당 인물의 정치적 승리를 축원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작품에서, 길을 잃은 일인칭화자에게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며 가르침을 주는 안내자(Providencia)는 아래와 같이 주요 개념별 세부 체계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La que tú miras como enamorado,
 que tiene en la mano el espada
 e con el peso lo pesa afinado,
 aquélla le llaman Justicia onrada.
 Miras sus fijas de que es ornada:
 Juizio, Verdat, Lealtad, Correbción,
 la quinta llaman Conjurado Sermón,
 la sexta Igualdad, la setena Ley dada.
 (González Cuenca(ed.) 1993, 312, vv. 225-230)

네가 사랑에 빠진 듯이 바라보는,
 손에 검을 쥐고

안정된 기쁨으로 가득한 그 여인은
 자비로우신 ‘정의’라고 부른다.
 그녀의 영광스러운 딸들을 보아라.
 판단, 진실, 성실, 반성,
 다섯 번째인 진정한 설교,
 여섯째인 평등과 일곱째인 법도가 있다.(논자 번역)

한편, 임빠리알은 이 작품과 유사한 문체와 형식으로 또 다른 알레고리 장편 픽션인 「일곱 선덕에 관한 글 *Dezir a las syete virtudes*」(1407)을 기록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이전 작품의 형식을 지지하는 일곱 선덕 체계와 아울러 이와 대응점이 되는 의인화된 일곱 악덕(Merona, Arriana, Juderra, Alenxada, Celestina, Asissina, Sardanapala)이 거론되는데 이들은 스페인 사회의 안위를 해칠 수 있는 반윤리적인 위험요소를 상징하는 개념일 가능성이 높다.⁵⁾

IV. 15세기 알레고리 픽션에 반영된 역사적 현실

14세기말 이후 기록된 스페인 알레고리 픽션에서는 그 고유의 추상성에다 현실적인 표현들이 더해져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경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두드러진다. 특히,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유형이 의인화된 개념이나 신화적 인물 이외에도 역사적 유명인물 특히 동시대 사람이거나 계층이 더해져 구성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작가를 둘러싼 역사적인 실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자주 눈에 띈다. 더욱이 1400년 후반 이후 스페인 알레고리 문학은 그 이전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서술 형태가 일인칭 자전적 화자의 어투로 이루어져 작가와 서술자 간의 간극을 좁히는 경향을 보

5) 본고에서 언급한 이 일곱 가지 반윤리적 관념은 이슬람교(Merona), 아리우스파(Aryana), 유대교(Juderra), 아비뇽의 교황(Alexada), 아랍 칼리프(Celestina), 1391년 유대인 대학살(Asyssina), 종교인들의 연애(Sardanapala)와 같은 당시 스페인 사회를 위협하는 부정적 개념을 각각 상징한다고 우드포드(Woodford 1950, 98)가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라빠사(Lapesa 1953, 347-348)가 이미 지적했듯이 우드포드의 논문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사실이다.

여준다.

예를 들어 이러한 현실적 요소와 비현실적 요소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새로운 알레고리 문체는 산띠야나후작과 후안 데 메나가 기록한 서사작품에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1435년에 스페인의 아라곤왕국이 제네바왕국의 함대와 벌인 해전에서 패전한 비극적 사건을 배경으로 산띠야나후작이 기록한 『뽀사의 희극』에서 아라곤왕국의 모후인 돈냐 레오노르는 볼모로 잡혀간 자신의 첫째 아들인 알폰소왕을 작중인물로 나온 보카치오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Pues qué te diré del fijo primero,
 crüel adversario de torpe avaricia?
 Ca éste se puede rey e cavallero
 llamar, e luzero de bello e milicia.
 En éste Prudencia, tenpranca e justicia
 con grand fortaleza habitan e moran;
 a éste las otras virtudes adoran
 bien commo a Diana las dueñas de Sicilia.
 (Gómez Moreno y Kerkhof(ed.) 1988, 172-173, vv. 193-200)

어리석은 탐욕과는 정 반대편에 서있는
 첫째 아들을 어떻게 소개하면 될까요?
 그는 국왕인 동시에 기사로도 불리며
 전투와 군대에서 셋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충의와 절제와 정의
 그리고 큰 강의가 동시에 존재하지요.
 시치아의 여신들이 다이애나와 함께 하듯이
 다른 선덕들(믿음, 소망, 사랑)도 그를 따른답니다.(논자 번역)

산띠야나 후작과 동시대 인물이자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당시 까스띠야의 왕 후안 2세(Juan II de Castilla)의 왕실서기였던 후안 데 메나는 장편의 알레고리 픽션인 『운명의 미로』를 기록하여 당시 스페인의 정치 및 사회 문제를 진단하였다. 단테의 『신곡』의 「천국」편의 기본 형식구조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서사작품에서 작가는 당시 스페인 사회에서 직접 관찰한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 세태에 관하여 작품의 자전적 화자를 통하여 비평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운명의 신’의 집 내부의 장소인 ‘목성천’에서 일인칭 자전적 화자인 주인공은 그리스 신화속의 인물로 목걸이 선물에 눈이 어두워 남편을 전장에 내보낸 에리필레스를 만나게 되고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당시 스페인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다.

Estavas, Erífíle, allí vergoñosa
vendiendo la vida de tu buen marido,
de ricos collares tu seso vencido,
quisiste ser biuda, mas non deseosa.
¡O siglo nuestro, edat trabajosa,
si fallarían los que te buscasen
otras Erífíles que desseassen
dar sus maridos por tan poca cosa!
(Pérez Priego(ed.) 1989, 106; vv. 713-720)

거기 있었구나, 에필리오, 수치스러운 여자여.
예쁘장한 목걸이에 판단력을 상실하여
너의 착한 남편의 목숨을 팔았구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과부가 되길 원했겠지.
아, 우리의 시대, 병든 세대여, 너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토록 작은 것에 이끌려
남편을 팔아넘기기를 원하는
또 다른 에필리오들⁶⁾을 발견하겠구나.(논자 번역)

시인이자 음악가였던 후안 델 엔시나는 자신이 자전적 화자이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알레고리 픽션 『명성의 승리』(1492)에서 그라나다를 점령하여 아랍세력을 이베리아반도에서 몰아낸 기독교 공동왕의 위업을 찬양한다. 본 픽션의 구도는 거시적으로 두 부분 즉, 일인칭 화자가 명성의 집이 있는 카스탈리아 섬을 찾아 여행을 하는 내용의 앞부분(vv. 1-264)과 화자가 기독교 공

6) 후안 데 메나가 이 시점에서 말하는 “에필리오들”은 당시 아랍인들을 이베리아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토회복전쟁(La Reconquista)이 한창이던 시절에 국가의 안위는 아랑곳없이 압투와 출세에 열을 올리던 스페인의 일부 상류계층을 암시한다.

동왕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식의 어투로 바꾸어 그 위업을 찬양하고 미래의 정치적 승리를 염원하는 뒷부분(vv. 265-400)으로 이루어진다. 본 작품에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자가 바로 후안 데 메나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이 알레고리 픽션은 까스띠야 왕실의 위대함을 알리고자 하는 작가의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예언자적 어투로 두 공동왕의 성공적인 미래를 기원함과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인 축언을 담당한 자신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Después, en el fin de aquesta labor,
en blanco gran parte yo vi sin estorias
para pintar de nuevas vitorias
quel rey con la reyna será vencedor;
(Rambaldo(ed.) 1978, II: xi; vv. 393-396)

나중에 이 여행의 끝자락에 서서
나는 우리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역사의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은 승리를 할 것이다.(논자 번역)

프란시스코 임페리알, 산띠야나 후작, 후안 데 메나, 후안 델 엔시나 등의 알레고리 작품이 말해주듯이 스페인의 15세기 알레고리 픽션은 이베리아반도 자체적인 문학전통의 토대 위에 프랑스 남부에서 발전한 트로바도르 문학과 이탈리아의 초기 르네상스 시인들의 문체를 수용함으로써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8음절 혹은 12음절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형률의 적용, 트로바도르들의 체계화된 시작법 도입, 라틴 고전문학과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 문학에서 배워온 다양한 신조어 사용, 작가를 대변하는 일인칭 자전적 화자의 개입, 추상적인 알레고리 표현을 통한 작가 개인의 문제의식 표현, 다양한 상징체계 도입 등은 당시 스페인 알레고리 작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특징뿐만 아니라 알레고리적 표현 속에서 동시대 인물들에 대한 묘사와 비평이 첨가되었다는 점은 15세기 스페인 문학이 중세적 방법론을 탈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알레고리 문체의 발전은

‘15세기 서구의 알레고리는 선형적 표현체계를 통하여 현실을 묘사하는 기술이다’라고 말한 딩코 키타노비크(Cvitanovic 1973, 46)의 해석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14세기 후반 스페인의 중심이었던 까스티야에서는 국왕 페드로 1세(Pedro I el Cruel)가 그의 이복동생인 엔리케 2세(Enrique II)에게 시해당한 사건이후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었다. 이때 새로운 왕계를 이은 트라스타마라 왕조(Dinastía de Trastámara, 1369-1406)의 시대 동안 줄곧 까스티야 왕국 내부에서 왕실의 비정통성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와 가치관의 혼란이 본격적으로 문제시된다. 한편, 이러한 침체된 기운을 쇄신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타고 14세기 말에 이르러 스페인 출신의 아비뇽 교황인 베네딕트 13세(Benedicto XIII, 1394-1417)의 수하에서 활동하던 스페인 출신 학자들이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 특히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와 부루니(Leonardo Bruni), 살루타티(Coluccio Salutati, 1331-1406) 등과 같은 문인들의 사상을 까스티야에 소개하기에 이른다. 대표적인 예로, 피렌체 출신인 폴루기오 살루타티는 인간의 고유한 자유성을 주장했고 초기로마의 공화정치와 고전문학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정치와 문학을 조화시킨 새로운 형태의 도덕체계를 추구하였다(Camillo 1976, 31-32). 이러한 신도덕주의는 기본적으로 페트라르카와 부루니의 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고전교육과 자유의지론에 기반을 둔 그들의 사상은 15세기 초 스페인에 유입되고 엔리케 데 비예나(Enrique de Villena), 알론소 데 까르타헤나(Alonso de Cartagena), 후안 데 메나, 페레스 데 구스만(Fernán Pérez de Guzmán), 산피야나 후작 등과 같은 당대 최고의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1400년도 초반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인문학적 경향이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사회전체에 폭넓게 적용되는 교육개혁 즉 ‘studia humanitatis’⁷⁾로 이어지기보다 소수 상류층의 지적 활동에 정당성

7) 스페인에서 15세기에 발견되는 ‘Studia humanitatis’라는 개념(‘educación del hombre’)은 인문주의에 입각한 교육개혁을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념들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이나 코멘트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자유로운 자성을 느끼고 자각하도록 유도하여 현상을 스스로 이해하게 만들어가는 교육방법론을 의미한다.

을 부여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한 15세기 까스티야 문필가들은 이탈리아 인문주의 사상을 사회 교화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문체를 개발하여 개인적인 윤리관이나 정치적 견해를 일인칭의 어조로 표명하는 데 주로 적용하였던 것이다.⁸⁾

V. 맺음말

스페인 15세기 인문주의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외국서적의 유입과 번역의 활성화에서 비롯되었다.⁹⁾ 13세기 중반에 알폰소 현왕의 명령으로 주요 문헌들을 자국어인 까스티야어로 번역한 이후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스콜라식 교육개혁에 힘입어 고전과 주요 외서 번역작업이 스페인 사회 전체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단테, 보카치오, 페트라르카가 행한 라틴고전에 대한 발굴과 아울러 번역을 통한 현재화과정은 15세기 스페인 지식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줌과 동시에 문체적 모델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당시에 엔리께 데 비예나(*Rhetorica ad Herennium*, *Divina Comedia*, *Eneida*), 알론소 데 가르파헤나(*De inventione*), 산피야나 후작, 후안 데 메나(*La Yliada romanceada*) 등과 같은 수많은 동시대 작가들이 고전작품들(Homero, Cicerón, Virgilio, Séneca, etc.)에 대한 번역작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정치, 외교, 종교, 학문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된 까스티야와 주변 유럽국들과의

8) 후안 2세의 명을 받아 후안 알폰소 데 바에나가 1430년경에 제작한 『바에나 가요집』(Dutton y González Cuenca(ed.) 1993)에는 약 십 명의 까스티야 작가가 지은 육백여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작가 개인의 정치관 혹은 윤리관에 기초한 변론이 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9) 구체적인 한 예로, 당시 까스티야 지역의 대표적인 문필가였던 산피야나 후작의 개인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목록을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San Agustín, San Ambrosio, Aristóteles, Platon)에서 비롯해 라틴시대 문필가(Cicerón, Virgilio, Ovidio, Lucano, Quintiliano, Plinio el viejo, Boecio, Julio Cesar, Tito Livio), 이태리와 프랑스 중세 말 작가(Dante, Boccaccio, Petrarca, Guillaume de Lorris, Jean de Mean, Alain Chartier), 스페인 문인(Alfonso el Sabio, Raymond Llull, Juan Fernández de Heredia, Pero López de Ayala, Juan Rodríguez del Padrón)의 이름과 그 작품이 언급된다(cfr. Schiff 1905, 460-464).

접촉은 바로 이러한 서적 수입과 번역 사업을 하기에 용이한 실질적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후 번역된 고전 혹은 인문주의 서적은 귀족, 사제, 궁중 서기, 필생 등 다양한 종류의 문인들의 손을 거쳐 라틴어나 외국어를 모르는 일반인들에게까지도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학문방법 상에 있어서도 탈중세적인 새로운 체계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관련 지식인들은 문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사학(retórica) 즉 말하는 방법 혹은 글쓰기 방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술성보다는 오히려 정치, 민법, 교육, 종교, 윤리와 연계되어 사회적 실용성이 강조된 당시의 수사학은 삼학(trivium)의 또 다른 영역인 문법과 논리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Camillo 1976, 38-39).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바는 대략적으로 1400년 이전에 기록된 스페인 시작품들은 비록 인간의 자유와 개성에 그 기반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스콜라적 변증법 체계를 탈피하지 못했으며 글의 궁극적인 목적도 중세적인 도덕교화적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가에게는 어휘선택, 문장형태, 예문구성 등에 관련한 시적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었다. 당시까지는 아직 그리스·라틴 고전과 인문주의 작품에 대한 열정이 앞설 뿐 어떻게 그 묘미를 살려서 까스띠야 문학에 적용시킬 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문학에 있어서, 적어도 15세기 중반에 근접해서야 비로소 스콜라식 방법론¹⁰⁾에서 벗어난 개성이 강한 문체가 인기를 누

10) 여기서 거론되는 스콜라식 문학방법론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작품의 전체구도를 재편집하거나 다소 제어하려는 형식적인 경향을 말한다. 알레고리 서사 문학을 포함한 까스띠야 15세기 픽션에서 자주 관찰할 수 있는 '서문'(prólogo), '문맥'(argumento), '비교'(comparaciones), '원인'(causas), '근거'(pruebas), '적용'(continuaciones), '결론'(fin 혹은 cabo) 등과 같은 소제목을 구성하는 세분화된 논리 단위들은 실질적으로 스콜라적 표현체계가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cfr. Camillo, 1976: 95). 이러한 개념들에 존재하는 스콜라적 변증법의 흔적은 까스띠야 15세기 서사작품 전체에서 발견된다(i.e. *Los doce trabajos de Hércules de Enrique de Villena, El planto de las virtudes e poesía por el magnífico señor don Inigo Lopez de Mendoza* de Gómez Manrique, etc.).

리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셸 프란시스꼬 임베리알, 후안 데 메나, 산피야나 후작, 후안 텔 엔시나 등과 같은 문인들은 모두 이러한 문학적 전환기를 대표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중세 알레고리 기법을 동시대 역사적 현실을 비평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문체로 발전시킨 스페인 15세기의 핵심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lvar, Manuel(ed.)(1991), *Antigua poesía española lírica y narrativa*, México: Porrúa.
- Baik, Seungwook(2003), *Aproximación al decir narrativo castellano del siglo XV*, Delaware: Juan de la Cuesta.
- Bejarano, Virgilio(ed.)(1996), *La Eneida*, Barcelona: Planeta.
- Camillo, Ottavio Di(1976), *El humanismo castellano del siglo XV*, Valencia: Fernando Torres.
- Cvitanovic, Dinko(1973), *La novela sentimental*, Madrid: Prensa Española.
- Dutton, Brian, y Joaquín Gonzalez Cuenca(ed.)(1993), *Cancionero de Juan Alfonso de Baena*, Madrid: Visor Libros.
- Gómez Moreno, Ángel(ed.)(1990), *Probemio e carta*, Barcelona: PPU.
- Gómez Moreno, Ángel, y Maximilian Kerkhof(ed.)(1988), *Marqués de Santillana / Obras completas*, Madrid: Cátedra.
- Kohut, Karl(1973), *Las teorías literarias en España y Portugal durante los siglos XV y XVI*, Madrid: CSIC.
- _____, “El humanismo castellano del siglo XV: replanteamiento de la problemática,” *Actas AIH*, VII, pp. 639-647.
- Lapesa, Rafael(1953), “Notas sobre Micer Francisco Imperial,” *Nueva Revista de Filología Hispánica*, VII(3-4), pp. 347-351.
- _____(1957), *La obra literaria del marqués de Santillana*, Madrid: Insula.
- _____(1982), *De la Edad Media a nuestro días*, Madrid: Gredos.
- Lida de Malkiel, María Rosa(1984), *Juan de Mena, poeta del prerrenacimiento español*,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 Oroz Reta, José y Manuel A. Marcos Casquero(ed.)(1982), *Etimologías*, Madrid:

Biblioteca de Autores Cristianos.

Pérez Priego, Miguel ángel(ed.)(1978), “De Dante a Juan de Mena: sobre el género literario de ‘comedia,’” *1616*, I, pp. 151-158.

_____(ed.)(1989), *Juan de Mena/ Laberinto de fortuna*, Madrid: Espasa-Calpe.

Post, C. R.(1915), *Medieval Spanish Alleg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Rambaldo, Ana M(ed.)(1978), *Juan del Encina / Obras completas*, Madrid: Espasa-Calpe.

Rivero García, Luis(ed.)(1997), *Prudencio / Obras*, Madrid: Gredos.

Schiff, Mario(1905), *La bibliothéque du Marquis de Santillane*, Paris: Librairie Emile Bouillon.

Steunou, Jacqueline, y Lothar Knapp(1975), *Bibliografía de los cancioneros castellanos del siglo XV y repertorio de sus géneros poéticos*, t. I, Paris: Centro Nationale de Recherche.

Woodford, Archer(ed.)(1950), “Francisco Imperial’s Dantesque Dezir a las syete virtudes: a study of certain aspects of the poem,” *Italica*, XXVII(2), pp. 88-100.

Ynduráin, Domingo(1994), *Humanismo y renacimiento en España*, Madrid: Cátedra.

부록: 주요 스페인 중세 알레고리 작품

중세스페인어로 기록된 주요 알레고리 픽션이자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분석대상을 아래와 같이 선별해 볼 수 있다. 모두 중세 필사본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한편 현대 판본으로도 출간된 적이 있다.

• 12세기 작품

「영혼과 육체의 논쟁 *Disputa del alma y el cuerpo*」

• 13세기 작품

「사랑의 논증, 그리고 물과 술의 논쟁 *Razón de amor con los denuestros del agua y el vino*」

「엘레나와 마리아 *Elena y María*」

• 14세기 작품

「사육제와 사순절의 논쟁 *Debate entre Don Carnal y Doña Cuaresma*」(Juan

Ruiz, 1330)

「육체와 영혼의 대결 Disputa del cuerpo e del ánima」(1382)

• 15세기 작품

「까스티야의 후안 2세의 탄생에 바치는 글 Decir al nacimiento de Juan II de Castilla」(Micer Francisco Imperial, 1405)

「일곱선덕에 관한 글 Decir a las siete virtudes」(Micer Francisco Imperial, 1409)

「고통과 노화, 추방, 가난 사이의 논쟁 Proceso que ovieron en uno la Dolencia e la Vejez e el Destierro e la Pobreza」(Ruy Páez de Ribera, 1408)

「오만과 신중의 논쟁 Proceso entre la Soberbia y la Mesura」(Ruy Pérez de Ribera, 1408)

「일곱 선덕에 바치는 글 Decir a las siete virtudes」(Micer Francisco Imperial, 1409)

「세 가지 색상 사이의 대화 Requête de los tres colores」(Pedro González de Uceda)

「꿈 El sueño」(Santillana)

「엔리께 데 비예나에게 바치는 애가 Defunción de don Enrique de Villena」(Marqués de Santillana, 1434)

『뽀사의 희극 Comedieta de Ponza』(Marqués de Santillana, 1436)

『운명의 미로 Laberinto de Fortuna』(Juan de Mena, 1444)

「이성과 감정의 논쟁 Disputa entre la Razón y la Pasión」(Alfonso Enríquez)

「사유의 정원 El vergel de pensamiento」(15세기중반)

「사랑들의 전쟁 Batalla de amores」(Gómez Manrique,)

「육체와 정신의 대화 Tractado del cuerpo e de la ánima」(1489)

「사랑과 노인과 아름다운 여인의 대화 Diálogo entre el Amor, un viejo y la hermosa」(1480-1500)

「명성의 승리 Triunfo de Fama」(Juan del Encina, 1492)

백 승 욱

고려대학교

2swbaik@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년 2월 3일

심사완료일: 2013년 4월 2일

게재확정일: 2013년 4월 9일

The Realist Tendency in Fifteenth Century Castilian Allegory

Seung-Wook Baik

Korea University

Baik, Seung-Wook(2013), The Realist Tendency in Fifteenth Century Castilian Allegory.

Abstract Fifteenth century Castilian allegory is characterized by its stylistic duality. First, it encompasses the traditional narrative method, consisting primarily of various philosophical and religious concepts of personification. Second, it tends to incorporate contemporary historical characters and incidents into allegorical visions. These features are evident in such works as the “Decir al nacimiento de Juan II” (Micer Francisco Imperial, 1405), the *Comedieta de Ponza* (Marqués de Santillana, 1435), the *Laberinto de Fortuna* (Juan de Mena, 1444) and the “Triunfo de Fama” (Juan del Encina, 1492). However, few studies have compared the particular features of these quattrocentist narrative poems with the traditional allegory composed in Castile during the late Middle Ages (i.e. “Razón de amor”; “Disputa del alma y el cuerpo”; “María y Elena”). Moreo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current fifteenth century Spanish allegorical narrative. This study attempts to address these issues.

Key words

Key words Medieval allegory, Allegorical fiction, Decir narrativo